

##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 (1) 온 세상이 캄캄 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비치었네
- (2)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맘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 (3)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 후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렴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 (1) 이 눈에 아무증거 아니뵈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소리 아니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 (2)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소원 주안에서 이루리
- (3)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 후 걸어가세 믿음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렴 걸어가세 믿음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6월 15일 (토) 기도 담당 : 최병호 집사

### \*광 고\*

6월 북한선교의 달 행사 중, 새문안홀에서 14일 (금, 오늘) 부터 공연할 계획이던 "연극"이 사정상 연기(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6월 14일 (금)

## 이른아침예배

인도 : 김명자 목사

예배를 여는말 ..... 인 도 자  
신 앙 고 백 ..... 다 같 이  
찬 송 ..... 84장 ..... 다 같 이  
기 도 ..... 백운성 집사  
성 경 봉 독 ..... 예레미야 7:12-15 ..... 인 도 자  
찬 양 ..... 새벽찬양대  
설 교 ....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합니다.』 ..... 김명자 목사  
기 도 .....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 다 같 이  
찬 송 ..... 545장 ..... 다 같 이  
축 도 ..... 설 교 자

### 📖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7:12-15>

12.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13.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4.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곳에 행하겠고 15.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9년 6월 14일 (금)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여 잠자리에서 거뜨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향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죄악된 자리에 머물러 있음을 도저히 두고 보지 못하시는, 그리하여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돌아서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늘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죄악 된 소욕을 끊어주셔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132년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새문안교회를 인도해 오시고,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입당케 하셨사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예배당에 입당하기까지 기도로 물질로 헌신하신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아름다운 수고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보게 하옵시되,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날로 늘어나게 하시며, 이 민족의 어두운 현실을 밝히는 등대되게 하옵소서. 미진한 많은 과제들도 잘 해결되어 감격적으로 헌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이상학 담임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맡기신 목회적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며, 모든 부교역자들과 선교사님들도 소명을 따라 충성되이 목회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로 하여금 교회의 모든 현안들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영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문안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교회학교를 부흥케 하시며, 청년들에게 능히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옵시며,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노후가 복되게 하옵소서. 중한 병으로, 혹은 각종 삶의 짐으로 지쳐 있는 믿음의 권속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아온 주의 백성들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간구하는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일제 식민지, 민족동란을 거치면서 피폐해진 조국에 경제적 부흥을 허락 하시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가 했지만, 작금의 현실은 대북 문제를 비롯한 각종 문제들로 혼란과 분열과 불안의 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는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간절하게 구하옵나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만민이 보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